

Coming Soon

나탄 드비르(Natan Dvir)의 세상을 보는 '눈'

화려한 광고판이 암도하는 뉴욕의 도시, 원색적이고 거대한 광고들과 그것을 전
혀 익숙하지 못한 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일상이 묘한 대비를 이룬다. 이스
라엘 출신 사진가 나탄 드비르의 눈에 비친, *(Coming Soon)*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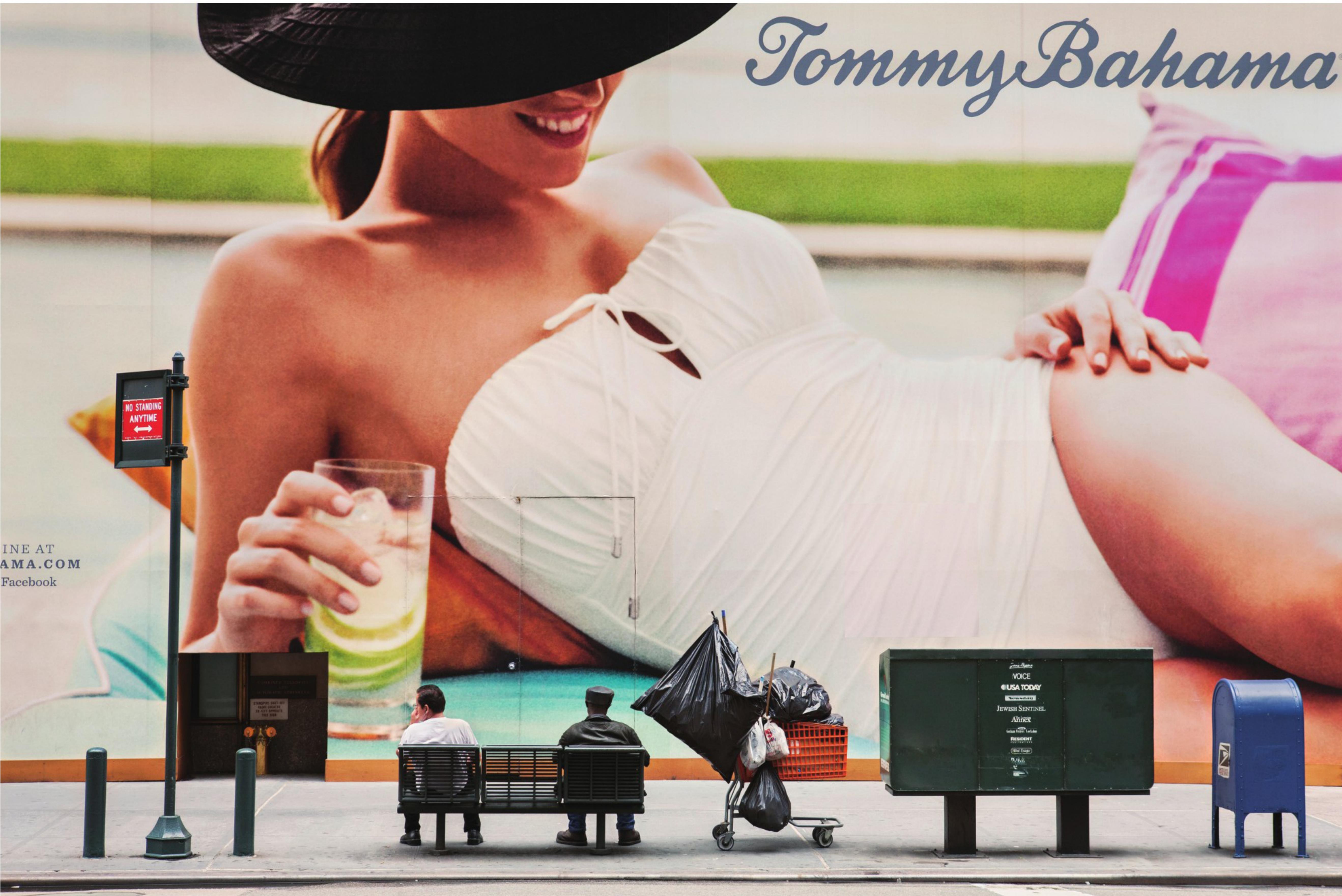


ZARA

COMING SOON

www.zara.com





"이 시리즈를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이었다.
뉴욕에 처음 온지 3주밖에 안 된 2008년 어느 날,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5번가를 지나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때 우연치 않게 건진 2개의
사진이 거대한 광고로 둘러싸인 뉴욕의
도시 풍경이었다. 그때 <Coming Soon>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사진가 나탄 드비르



DOLCE & GABBANA



- Zara 03(2011)
- Dolce & Gabbana 01(2012)

“모든 것이 상품화된 도시 풍경은 이제 일상이 돼버린 느낌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원색적이고 거대한 광고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광고의 환상과
거리의 현실이 공존하는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진가 나탄 드비르

Q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곳에서 교육도 받았다고 들었다.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출신이다. 이 곳에 온 지는 5년쯤 되었다. 루마니아 출신의 부모님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셨다. 2008년 미국으로 이사올 때까지 짧은 시절을 이스라엘에서 보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경제학과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서 리서치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다.

Q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했는데, 어떤 계기로 사진을 시작하였나?
2002년쯤 친구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문득 ‘나의 일이 즐겁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가 사진기자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뜬금없는 제안을 해왔다. 그는 당시 타임아웃 텔아비브(Time Out Tel Aviv)의 기자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농담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자의 반타의 반으로 나의 포트폴리오가 그 친구와 함께 일하던 편집장에게 보내졌고, 그 편집장이 바로 일을 제안했다. 그것을 계기로 두 곳의 잡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몇 개의 광고도 찍었다. 8개월이 지나서 나의 첫 번째 사진집이 출판되었고 그때 나는 비로소 전업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Q <Coming soon> 시리즈는 어떤 계기로 찍게 되었나?
현재까지 5년 간 뉴욕에서 살며 작업하고 있다. 2008년 뉴욕에 온 지 3주쯤 되었을 때,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5번기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 우연치 않게 전진 2개의 사진이 거대한 광고로 둘러싸인 뉴욕의 도시 풍경이었다. 그때 <Coming Soon>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Q <Coming soon> 시리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대형 건물이 새롭게 단장하고 건축될 때마다 그 광경은 화려한 광고판에 의해 재포장된다. 이미 시리즈를 통해 나는 브랜드의 광고로 물든 도시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미 모든 것이 상품화 돼버린 우리의 도시 풍경은 이미 일상이 돼버린 느낌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원색적이고 거대한 광고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거대한 광고판들은 도시 풍경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도시의 일상과 뒤섞여 있다. 광고의 환상과 거리의 현실들이 함께 연출된 공간이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관객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각적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Q 최근 사진은 초기 이스라엘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작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최근 작업에 특별히 영향을 준 것이 있나?

내가 진행해온 각각의 프로젝트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담고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에서 촬영한 진지하고 심각한 느낌의 초기 다큐멘터리 사진들은 로버트 프랑크, 유진 리차드, 알렉스 웹 그리고 지프 코렌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 그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린카 딕스트라, 토마스 스트루프 그리고 조나단 토고브닉 등 몇몇 사진가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최근작인 <Coming Soon> 시리즈를 작업할 당시에는 아시아 사진, 특히 중국 사진들에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보았었다.

Q <Coming Soon> 시리즈는 여전히 진행 중인가?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것은 5년 전쯤이지만 프로젝트 작업으로서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한 것은 2011년과 2012년이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이 시리즈가 출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Q 사진 촬영 시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촬영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한다. 나의 사진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의 시각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름다운 사진들은 몇 초 동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느 순간 그 앞에 서게 만든다. 더 나아가 감동을 주는 사진들은 몇 년 동안 마음에 남아 있다.

Q 가장 애착이 가는 시리즈가 있다면?

최근에 작업한 <Coming Soon> 시리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만족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Zara’ 작품과 ‘Tommy Bahama’ 작품이다.

Q 현재 계획 중인 사진 프로젝트나 전시는 무엇인가?

국제사진센터에서 두 개의 강좌를 새로 맡았다. 얼마 전에는 더 클리블랜드 클리닉(the Cleveland Clinic)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10 말에는 뉴욕박물관(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라이징 워터스(Rising Waters) 기획으로 진행되는 그룹전에 사진을 출품한다. 그리고 현재 뉴욕과 프랑스에서 <Coming Soon> 시리즈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MP



SHOP ONLINE AT
TOMMYBAHAMA.COM
Follow us on Facebook

Tommy Bahama03(2022)

나탄 드비르 (Natan Dvir)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이스라엘 출신 사진가이다.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를 담은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과 미국의 스쿨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국 국제사진센터(ICP)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뉴욕의 폴라리스 이미지 사진 애이전시와 아나스타시아 사진갤러리의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휴斯顿 미술관, 포틀랜드 미술관, 클리블랜드 현대 미술관, 산타 바버라 미술관들을 비롯한 미국, 유럽, 남미, 이스라엘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하였다. 그의 사진은 뉴욕 타임스, 뉴스 위크,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국제 잡지에 게재되었고, 국제 사진공모전에서 우승, 을상의 사진상을 수상하였다.

조안 양정아 (Joanne Junga Yang)는 Y&G Art 디렉터, 독일 ‘유럽파인 포토그래피’의 편집위원이며 미국, 프랑스, 슬로바키아, 러시아, 포르투갈, 영국, 호주 등 세계적 사진행사의 심사위원 및 포트폴리오 리뷰어에 선정,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인터네셔널 포토 어워드 국제사진상의 심사위원으로 선정, 2011년 서울사진축제 ‘본전시’ 큐레이터, 2013 동강 국제 사진제의 ‘국제전’ 공동 큐레이터를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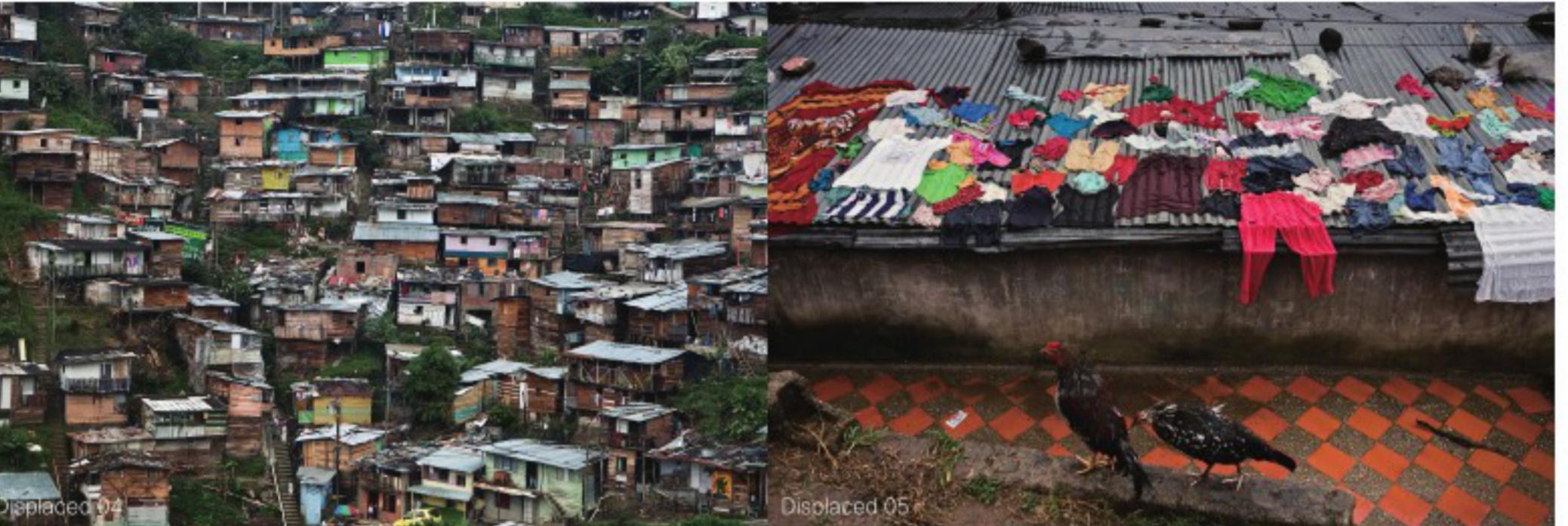
글 | 조안 양정아(프리랜서) 디자인 | 장준일

나탄 드비르(Natan Dvir)의 또 다른 작품세계, 다큐멘터리

화려한 광고판이 압도하는 뉴욕의 도시 풍경을 담은 〈Coming Soon〉 시리즈는 시원하고 경쾌한 반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완성한 전작들은 사뭇 무겁고 진지하다.

DISPLACED 콜롬비아 난민촌, 그들의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나탄 드비르의 시선은 한때 남미 국가 콜롬비아를 향하기도 했다. 도시 외곽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의 공간이 그 주인공이다. 악물과 관련된 폭력, 비위생적인 환경,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이 여과 없이 보여진다.



EIGHTEEN 이스라엘의 18세, 그들만의 이야기

이스라엘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사회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작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18세의 아랍 남자, 여자들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과 달리, 대부분 군대에 가지 않는다. 문화와 내부 충돌이 그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를 통해 존중을 통한 화해를 이뤄내고자 했다.



SHELTER 빙곤, 절망, 상처, 아픔…

수단과 다른 아프리카에서 내전과 집단 학살을 피해 온 난민들이 이집트에 정착했고, 그 중 일부는 국경을 넘어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도피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장미빛과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조차 쉽게 얻을 수 없어 절대적인 빙곤에 시달리며 대부분은 노숙자로 생활한다. 무책임한 이스라엘 정부와 UN의 방관 속에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그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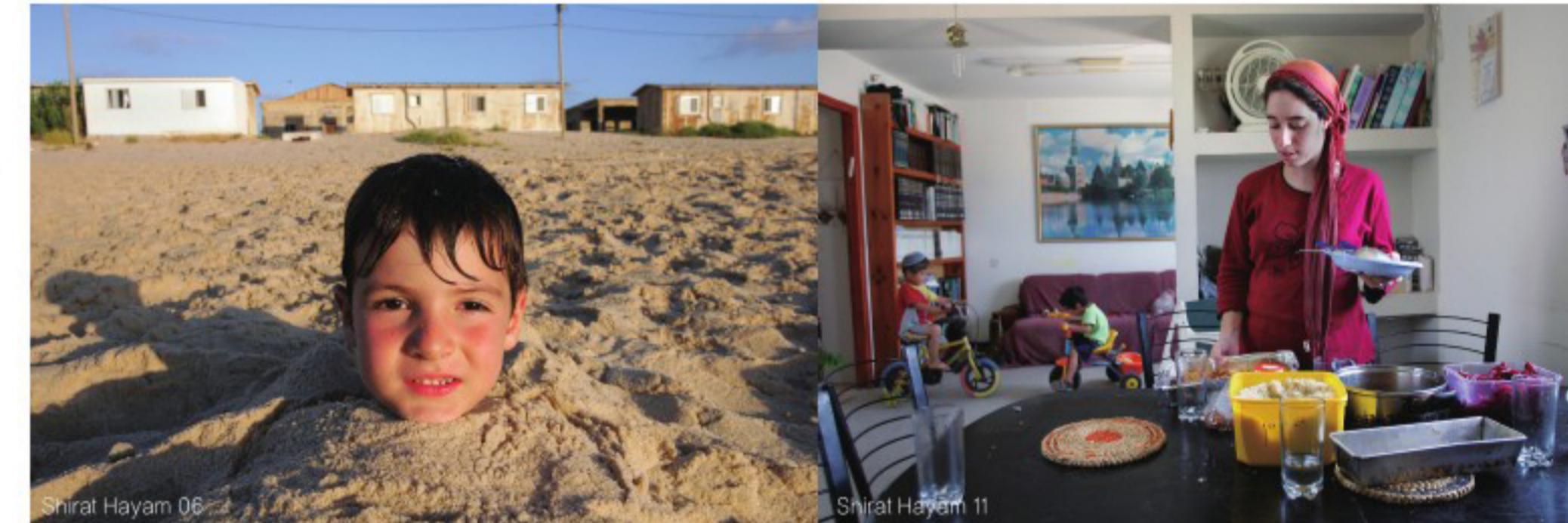
Belief 22



Belief 06

BELIEF 종교를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자란 작가에게 종교와 신앙은 뿌리와도 같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의 역사가 혼재된 이스라엘에서 종교 의식, 정치적인 이슈들이 충돌하는 장면은 쉽게 만날 수 있다. 고요, 분노, 환희, 쟁탈, 이해, 광신 등 종교를 향한 다양한 테마를 극적인 앵글로 표현했다.



SHIRAT HAYAM 사람, 일상, 평화

2005년 촬영한 작품이다. 가자지구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철수하기 전 열 여섯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수개월 간 함께 지내면서 유대인 가족과 아이들의 아주 평화로운 한 때 도 포착할 수 있었고, 경찰이 강제로 철거하는 당일의 긴박한 상황도 접할 수 있었다. 뉴스를 위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적인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THE TEL AVIVIANS 텔 아비브의 초상

텔 아비브(Tel Aviv)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이자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곳이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상점 주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동성애 커플 등 그들의 리얼한 일상과 모습들을 담담하게 포트레이트로 담아냈다.